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86
----------	-----

제안년월일 : 2001년 7월 19일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주 문

- 철도는 문명 발전에 중추적 자리를 잡아왔고 우리나라 교통과 산업의 동맥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경부선은 철도 복·복선화와 고속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전선의 시발역이자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은 70년대부터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 와서야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게 되었음.
- 구도심의 역세권 개발과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목포역사가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서 목포역 지하화가 조기에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제안이유

- 목포는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의 거점도시로서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교역의 요충지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임.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문

목포는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의 거점도시로서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서남해안의 거점 항구도시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의 요충지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서남권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목포시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21세기를 대비한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 SOC확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불공단 업체 유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적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유동 인구는 수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발전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원활한 시내 교통 소통의 도로여건을 구비하여 시·공간적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면에서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은 헌정 이후 반세기 동안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수십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 와서야 겨우 결실을 맺는 사업으로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 모두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포 역사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하루에도 수십 회 철도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므로 도심교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에 지장은 물론 도심권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고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26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경전선의 시발역이자,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은 목포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등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목포역 철도 지하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구도심의 역세권 개발에도 필연적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 및 호남선 전철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목포 역사를 지하화하여, 지하는 여객수송 전용으로, 지상은 주상복합 건물로 사용하고, 화물역 잔여부지는 도로로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목포역을 지하화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하오니 21세기 목포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도시로 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서남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26만 시민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같이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1년 7월 25일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